지역 소식통

고창 청년마을 '원더청년' 지속가능한 방향 제시

농촌마을에서 청년들이 모여 장담그기를 체험하는 '고창 청년마을(원더청년)'이 주목받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을 성과공유회에서 고창 청년마을 원더청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창군 청년마을 '원더청년'(고수면 소재)은 고창의 전통자원인 옹기와 씨간장을 핵심 테마로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더청년'은 △장 담그기, 발효 유산 탐구 등 전통 체험(씨유산 헤리티지) △숲 놀이터를 활용한 자연 체험(숲마루 헤리티지) 등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이상 무'

정읍시는 올해 3분기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시설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하수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농촌·산간마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급수원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로 법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검사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산내면의 소규모급수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대장균·불소·냄새·맛·잔류염소·우라늄·라돈 등 총 15개였다. 검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안전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반기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읍시·민주당 지역위, 2026년 국가예산 확보·지역현안 해결 총력 다짐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함께 '2025년 하반기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공유와 부처 차원의 세부 실천과제에 지역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주요사업 담당 과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읍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 △국가예산 주요 건의사업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특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정읍의 핵심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제는 지난 3년여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래 전략사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의 주요 현안과 지역공약이 국가 차원의 예산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산 국회단계 총력 대응·군민안전 최우선"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서 "신규 사업 발굴 선제대응·안전사고 예방 만전 기해야" 강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 확보, 지방세제 개편 대응, 방사능방재 훈련 준비, 집중호우를 비롯한 이상 기변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가력항 선착장 확장,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핵심사업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백산성지 역사문화권 조성 등 5건의 신규사업이 포함돼 내년도 국가예산 6천억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 세제 감면, 빈집 정비 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제도가 담겼다"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원전 인근지역인 우리 군은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주민 대피 절차와 유관기관 협력, 의료 지원 등 실질적 대응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드러난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군수는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변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비상근무 체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해 군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마을별 현장 지급… 15일 시작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8일 공음면 건동리 일원 1만6528㎡(약 5000평) 규모의 고구마 수확 현장을 방문해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구마 수확 현장 찾아 농업인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등 30여명 함께해

심덕섭 고창군수는 8일 공음면 건동리 일원 1만6528㎡(약 5000평) 규모의 고구마 수확 현장을 방문해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농업분야 관계 공무원, 고구마 재배농가, 당산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하였다.

고창군은 서늘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지대를 기반으로 고구마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북 최대의 명품 꿀고구마 산지다. 현재 약 600여 농가가 총 1400여ha 면적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김헌동 농가는 지난 4월6일부터 정식을 시작해 5월25일까지 약 70만 평 규모에 국내 인기 품종인 '호풍미', '베니하루까'를 심었으며, 앞으로 약 5000톤 가량의 고구마를 수확할 계획이다. 수확된 고구마는 쿠팡,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에 납품될 계획이다.

고창 고구마의 우수한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빈츠·마가렛트·카스타드·빼빼로·찰떡아이스 등 13종의 인기 제품을 계절상품으로 한정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스타벅스에서는 고구마말랭이 제품 '한 입에 쏙 고구마'는 출시하였으며 전국 매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BGF리테일은 자사 편의점 CU를 통해 고창 햇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사전 확보 물량 약 1천 톤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구마는 우수한 품질과 높은 당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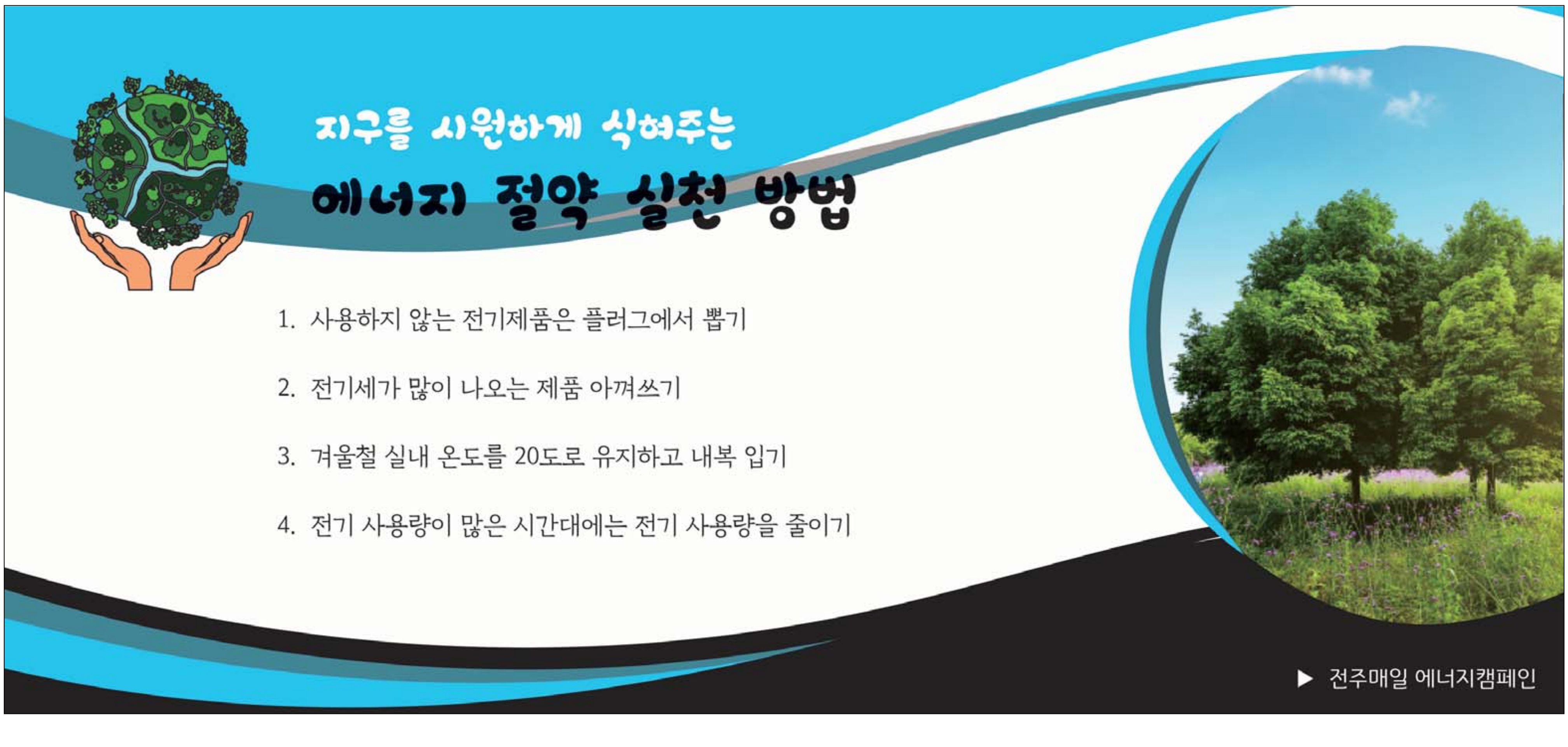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 지원

정읍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읍시는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전액 시·도비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보험료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해 청년 본인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금 등 총 19개에 달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하기 쉬운 손·발가락 부상과 정신질환위로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금액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은 180일 한도로 하루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에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